

# “완주 남계리 유적 명칭, 첫 순교 역사 담아야”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도의원 발의 사적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는 지난 16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발의한 ‘완주 남계리 유적’ 사적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채택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17일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위치한 유적을 ‘완주 남계리 유적’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예고했다. 이 유적에서는 1791년 신해박해 때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와 관련 유물이 확인됐다. 한국 천주교 초기 순교



이명연 의원

역사와 조선 후기 장례문화를 함께 보여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 “사적 지정을 적극 환영하지만, 현재 예고된 명칭은 유적이 있는 장소만 나타낼 뿐 이곳이 어떤 역사를 지닌 곳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의 명칭은 국민이 이름만 보더라도 유적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종교의 입장을 강조하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이 지닌 실체와 가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가유산청에 ‘완주 남계리 유적’의 최종 사적 지정명칭을 ‘완주 남계리 천주교 첫 순교자 묘역’으로 변경할 것

을 촉구했다.

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위원회가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지역사회, 천주교계,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명칭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유산의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그 유산이 간직한 역사와 정체성을 국민에게 전하는 첫 번째 설명”이라며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의 묘역이라는 역사적 성격과 상징성이 최종 지정명칭에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 국가유산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은 지난 16일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준공식을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 부안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 부안군,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준공

고려청자 계승·발전·지역 도예문화 활성화 기대

부안군은 지난 16일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준공식을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 부안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도예인들에게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고려청자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작공방과 가마실 등을 갖춰 창작활동은 물론 전시와 교육, 교류가 가능한 복합 창작공간으로 운영된다.

부안군은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예작가 양성과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해 지역 도예문화 활성화는 물론 고려청자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문화관광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도예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려청자의 전통과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부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예문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도예인의 창작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도예문화 진흥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힘을 기울인다. /부안=김석진 기자

## 빛으로 피어난 전통, 청아원 밤 물들이다

남원 청아원에서 25일 ‘공연 빛나는 밤에, 청연’ 개최

남원시 국악공연장 청아원과 지역 청년예술인 단체 ‘(유)청연’이 오는 25일 오후 7시 청아원에서 전통연희와 빛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공연 빛나는 밤에, 청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202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아원 상주단체인 청연이 선보이는 두 번째 우수 레퍼토리 공연이며, LED 무용팀 ‘달빛유랑’과 함께 전통연희와 빛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빛’을 주제로 전통연희의 역동성과 LED 퍼포먼스를 접목해 한여름 밤의 감성을 담아내며, 청년예술인들의 창의적인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시민들에게 특별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빛의 행렬(길놀이) △빛을 두른 소고의 춤결(소고춤) △빛으로 노는 버나(버나놀이) △밤에 피어난 빛의 꽃(꽃춤) △빛의 회전(죽장물놀이) △어둠을 가르는 빛(부채춤) △하늘을 흐드는 기개(용기놀이) 등으로 구성, 공연은 무료로



진행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여름철 볼거리 ‘풍성’

수국길 조성·특별기획전 운영

남원시는 여름철을 맞아 지리산 허브밸리에 수국길과 특별기획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하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지리산 허브밸리에는 느티나무 숲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앤드리스섬머 수국길’이 조성돼 싱그러움 여름 정취를 선사하고 있으며, 자생식물공원 내 지그재그 숲길에는 목수국이 활짝 피어 무더운 여름에도 더위를 잊고 산책하기 좋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열대식물원에도 수국과 다양한 여름꽃이 조

성돼 실내외 어디서나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은 숲길을 따라 산책하면서 수국의 청량한 색깔과 허브밸리 특유의 자연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가족, 연인, 친구 단위 여름 나들이 장소로 적합하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함께 여름 특별기획전을 운영해 ‘세계 양서·파충류 특별기획전’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는 ‘2026 세계 곤충 월드컵 특별기획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시, 청년문화예술패스 미사용분 환수·사용처 확대

전주시가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의 1차 발급자들을 대상으로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시는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 1차 발급을 받고 오는 31일까지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자의 포인트를 전액 회수해 기회를 놓친 다른 청년들에게 혜택을 재배포하는 2차 추가 발급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된 예산을 활용한 2차 발급은 오는 8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포인트가 회수된 청년은 2차 추가 발급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총 20만 원의 지원 혜택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달 말까지 단 한 번이라도 공연, 전시, 영화 예매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오는 8월 이후부터는 시스템이 정

비되는 대로 ‘도서 분야’가 새롭게 추가돼 청년문화예술패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문화예술패스 소지자는 도서분류번호 기준에 따라 교양 및 전문 서적 중 인문·예술·문학 등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이영숙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와 영화 관람 등 관심이 있으나 어렵게 신청하지 못했던 다른 청년들을 위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발급자의 미사용분을 회수해 재신청을 받고자 한다”면서 “이미 발급받은 청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문화예술패스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 기한 확인 및 잔여 금액 조회, 사용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